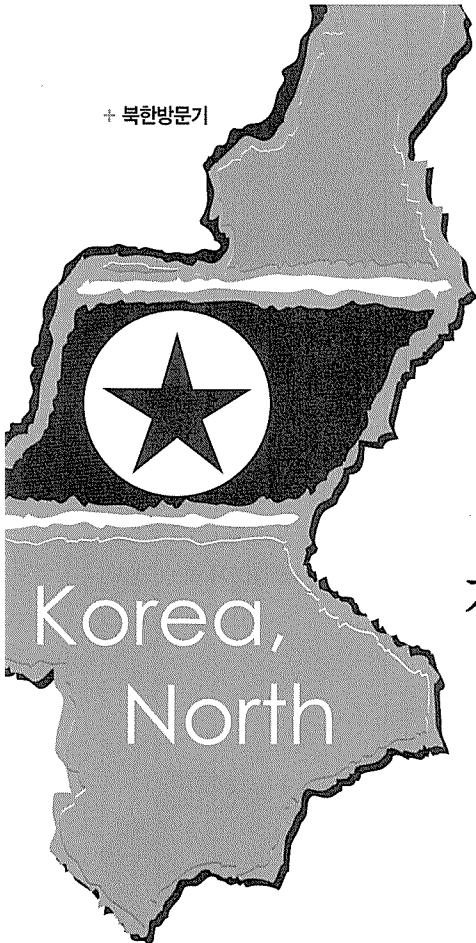


+ 북한방문기



가깝고도 먼 곳, 평양

글|노재만(대한결핵협회 관리부장)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 다녀왔다. 목적은 '정성알약품공장' (행정구역 : 평양시 낙랑구역 승리동) 준공식 참석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그리고 향후 결핵협회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념의 차이로 오랜 세월 대립과 갈등으로 일관해 오던 북한과는 6.15 공동성명이 있는 뒤부터 겨우 이산가족의 면회 정도가 고작이었으니 떠나기 전날 밤부터 선잠으로 날을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떠나기 전까지 평양으로 들어가는 직항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김포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하여 4시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으니 비행시간은 1시간 10분이 소요된 셈이다.

말이 국제공항이지 우리네 지방공항보다도 규모가 작았으며 시설은 초라하고 낡은 데다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공항 출구부터 그들의 생활상을 짐작케 했다.

일행은 모두 103명. 2대의 도요타 대형버스와 25인승 버스, 그리고 승용차 한 대에 나누어 타고 공항에서 30분 정도 걸린다는 평양으로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 일행은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안내원 동무(?)의 안내를 받아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 14살까지 살았다는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둘러본 후 평양시내로 들어섰다. 때는 이미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안내원은 ‘3대혁명 전시관’이라며 한 건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3대 혁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라한다. 주체사상이야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문화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지 궁금하였지만 그 누구도 묻지를 못하는 분위기.

대동강이 흐르다 분지를 이룬 양각도(양의 빨갈이 생긴 조그마한 섬)에 세운 양각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은 47층짜리였는데 최근에 신축한 호텔이라 고려호텔보다 전망이나 시설이 좋다고 한다. 지금은 비수기라서 손님이 없지만 여름에는 만원이라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니 북한의 ‘부익부 빈익빈’은 우리보다 더한 모양이다.

평양에서도 넓고 깨끗한 신도로의 이름은 ‘광복거리’인데 도로 양쪽으로 예술인 아파트, 체육인 아파트, 교수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었다. 외관이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 다소 깨끗해 보였다. 실제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걸어서 보기에는 약 30층짜리 한 동에 300-400호 정도는 되는 듯했다. 깨어진 유리창과 찢겨진 베란다(거의가 복도식 아파트) 비닐은 보수가 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지 않는 집도 많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평양 시내는 다소 붐볐다. 개인 교통수단은 자전거였고 대부분은 전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하고 있었다.

가로등이 있었으나 켜져 있지 않았고 신호등은 역시 켜져 있었으며 교차로에선 동그랗게 그어진 금 안에서 여자 교통안내원이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늘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춥고 여름엔 또 얼마나 더울까.

저녁만찬은 민화협에서 주최했는데 음식이 깔끔하고 담백했다. 아마 화학조미료보다는 천연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이튿날 묘향산을 향해 출발했다. 묘향산으로 가는 길은 왕복 4차선 도로로



정성제약 알약폼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남측 방문단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1시간 40분 정도 가는 동안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10대 미만이었다. 단편적인 사실이지만 이곳 연료사정이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묘향산으로 향하는 주변 길은 고구려가 중국 침략군을 물리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 있었던 곳으로 청천강의 푸른 물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얇은 곳은 얼어서 어린 녀석들이 노는 모습도 보이고 간간이 고기 잡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묘향산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국제친선전람관'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 수반이나 대사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전시한 곳이다. 그곳에 진열된 선물은 총 21만8천여 점으로 그 규모가 대단했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현 대통령까지 선물을 보냈는데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그 옛날 반공을 국시로 한 시절이 생각나서). 한편으로는 우리네 대통령들께서도 외국 수반들이나 대사, 영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았을 텐데, 그 물건들은 다 어디에 두고 관람시키는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원래 일정은 묘향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미끄러워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해 취소되었다. 대신 보현사에 들러 팔각13층 석탑과 유점사에서 옮겨온 동종(銅鐘), 대웅전, 서산대사와 제자인 사명당 '유정', 뇌묵당 '처영'

세 분을 모시고 있다는 수충사 등을 구경하였다. 남한의 대웅전에는 앞마루가 없는데 이곳 대웅전에는 대청마루가 있다는 점도 특이했다.

그 외 평양시내와 남포에 있는 서해감문, 우리민족, 금성동양농기계공장을 견학하고 옥류관에 들러 그 유명한 평양냉면도 맛보았다. 1982년에 세웠다는 175미터 높이의 주체탑, 그리고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릉 등을 돌아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공식회의가 아닌 만큼 사업에 대한 협의는 저녁식사를 끝낸 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되었는데, 북측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3박 4일간 북측(민화협) 보건의료 담당 참사관과 나눈 의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나의 판단을 조금 덧붙여 본다.

- ① 우리협회와 북민협과의 남북지원 관계는 기본적으로 2002년도에 체결한 상호 협력관계협약서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事實)에 입각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고, 이 부분을 회복하는 차원의 인적 물적교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북한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북측 민화협의 요구가 있었다. 아직까지 우리의 독자적인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합동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면 그때 가서 독자적인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사업전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 ③ 북한에 공급하는 비시지 유효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합동사업은 '우리민족 서로돕기'를 통하여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④ 향후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계속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적인 현금, 현물을 지원해 주는 한편 적어도 1년에 2-3차례 정도 그들과 만나서 의논하고 학술교류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卍